

“중학생들은 미쳤어!” 초기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속심리모델

정향진*

1. 들어가며

사춘기는 인생 주기에서 매우 독특한 단계로서, 급격한 육체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적응,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등이 시작되는 때이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아동기가 끝났음을 다소 극적으로 알리며, 이때부터 성인의 지위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단계인 청소년기가 시작된다. 사춘기의 2차 성징의 발달은 성인의 세계로 진입하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자동적인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성인의 지위는 단순히 성적인 준비 상태만이 아니라, 재생산이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chlegel 1995). 많은 사회에서 사춘기에 즈음하여 통과 의례(예를 들면, 입문식이나 덤불 학교)를 행하여 이 시기의 과도기적 성격(liminality)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혼인, 친족, 계급, 직업 등에 있어서 성인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

사춘기는 인간 발달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사회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일찍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4 정향진

이 마가렛 미드(1961(1928))는 사모아섬에서 행한 사춘기 소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모아와 미국의 십대들은 서로 매우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따라서 그들은 사춘기를 다르게 경험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드는 사춘기에 반드시 수반된다고 간주되었던 감정적 격동과 정서적 긴장, 심리적 갈등 등을 사모아의 소녀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사춘기를 생물학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한 “질풍노도(Sturm and Drang)”의 시기로 보았던 심리학자 G. 스탠리 홀(1916(1904))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¹⁾ 그녀는 사춘기의 경험은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건화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와 “생물학” 혹은 “양육”과 “본성”을 둘러싼 고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에서 나는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들²⁾의 민속심리적 (ethnopsychological)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사춘기에 대한 문화적 정의는 사춘기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춘기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의한다. 민속심리적 모델이란 민속 모델(folk model)의 일부로서, 감정과

1) 데렉 프리먼(Freeman 1983)은 그의 책 *Margaret Mead and Samoa: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Anthropological Myth*에서 사모아의 사춘기가 질풍과 노도의 시기가 아니라는 미드의 민족지가 오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미드가 사모아의 사춘기 소녀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을 사모아 사회의 전반적인 평온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던 반면, 프리먼은 사모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높은 정도의 공격성과 폭력을 나타낸다고 반박하였다. 이 논쟁에 대해 사모아를 연구한 많은 다른 학자들은 미드의 민족지적 보고가 오류였다고 보다는 불완전했다고 본다(Caton 1990 참조).

2) 여기서 “미국인들”이란 일차적으로 미국의 한 중학교의 교사들이지만,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춘기에 대한 민속심리적 모델은 미국 사회에서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대중에 의해서도 대체로 공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 인간 발달 등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암묵적인 지식을 일컫는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민속심리적 모델은 사람됨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청사진을 제공한다(예를 들면 Lutz 1983). 특히 성인의 역할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춘기에 감정에 대한 민속심리적인 코드의 학습은 사회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이 글은 사춘기라는 인간 발달의 현상과 감정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떤 민속심리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춘기에 대한 서구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민속 이론의 관계 또한 검토한다. 여기서 민속 모델과 민속 이론을 구분해 본다면, ‘민속 모델’이 반드시 언어적인 표현을 동반하지는 않는 보다 광범위하고 암묵적인 문화적 지식을 일컫는데 비해, ‘민속 이론’은 어떤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토착적으로 사용되는 전제들(propositions)로 구성되며, 이러한 전제들은 그 이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술될 수 있다³⁾(D’Andrade 1995: 172; Strauss 1990: 314). 민속 모델은 대개 단편적으로만 은유 등의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표현되며, 분석자에 의해서 유추된다. 민속 이론은 민속 모델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언어화된, 토착적으로 생산되는 이

3) 최근 로이 당드라데(Roy D’Andrade)를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인류학자들은 “cultural model”과 “cultural theo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folk model”과 “folk theory”라는 용어가 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또한 용어의 번역에 있어 “문화(적) 모델/이론”보다는 “민속 모델/이론”이 인류학적 접근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생각되어, “민속 모델/이론”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덧붙이면, “모델”과 “이론”의 구분이 항상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경우 어떤 문화적 지식이 얼마나 의식수준에서 이론화되어 있는가라는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론을 가리키는 반면, 민속 모델은 그러한 이론화에 밑바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사춘기에 대한 전문 이론과 민속 이론이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며, 두 가지 이론 모두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서구사회의 민속 모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사춘기 이론의 예를 통해 서구 심리학 이론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2. “머리는 방학 중(The Brain on Vacation)”

이 글은 1998년 9월에서 2000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에 있는 중학교(링컨중학교)에서 행해졌던 현지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⁴⁾ 링컨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7학년과 8학년의 2년제 공립 중학교로서, 영재프로그램(Gifted and Talented Program)을 통해서 많은 수의 백인, 중산층 가정 출신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⁵⁾ 학교에 대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교직원들의 절대 다수(53명 중 48명)가 백인이었던 점은 링컨중학교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이 백인, 중산층 중심이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였다.⁶⁾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은 학생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
- 4) 이 글에서 사용되는 학교명과 제보자의 인명은 모두 가명이다.
- 5) 링컨중학교는 세 개의 수준별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영재프로그램은 상급의 능력 집단을 대상으로 핵심 과목(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난이도와 깊이, 속도를 더한 교과 과정이었다. 링컨의 전체 학생 인구는 800여명으로 그 중 약 절반이 백인이었으며, 흑인과 아시안계 학생들이 비슷한 숫자로 유색인 학생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6) 따라서 이 글에서 예로 드는 미국인 교육자들이란 대체로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인종적으로는 백인을 가리킨다.

이 백인과 중산층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화에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 교육자들의 관념을 살펴보자.

현지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교사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곳(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은 날뛸니까? (나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니 제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다른 나라 아이들은 규율이 잘 잡혀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을 보면, 애들은 제멋대로죠(98/Sept/4: 1).⁷⁾

나는 그 교사가 왜 “다른 나라 아이들”이 더 규율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였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교실 수업을 두고 보았을 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미국 학생들은 체벌 등 외부적인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체로 조용하게 수업에 집중하였으며,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과제를 계속하였고, 교사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가만히 손을 들고 교사가 지적할 때까지 기다렸다.⁸⁾ 교사의 주목을 받기 위한 떠들썩하고 열띤 경쟁이나 학생들 사이의 커다란 웃음소리 등, 교실 상황이라면 공통적으로 보여준다고 내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장면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사실 나에게 링컨중학교의 대부분의 수업 시간은 아주 가라앉은 분위기로 느껴졌다.⁹⁾ 교실을 옮기는 시간

7) 이 글에서 인용되는 현지연구의 자료들은 문헌으로 간주되어 연구자가 사용하는 분류의 체계와 쪽수가 표시된다.

8) 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수준별 반편성에서 상급인 경우, 즉 영재프로그램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정서/행동장애아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위한 훈련이 가장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9) G. Spindler and L. Spindler(1987)는 미국과 독일 학교의 비교 연구에서 미국의 교실에 대해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passing time)이나 점심시간 동안에라야 나는 미국 학생들이 “제멋대로(wild)”로 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의 한국 학생들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위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현지연구가 진행되면서 나는 링컨중학교의 교육자들이 초기 사춘기를 인생 주기에서 가장 감정적인 단계로 특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학생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괴상한,” “머리가 돈,” “미친,” “괴짜,” “바보 같은,” “변덕스러운,” “불안정한,” “떠들썩한,” 등의 수식어를 흔히 사용하였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더 “안정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통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초기 사춘기의 감정적인 격동은 “재미”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덜 활기 있고,” “자기들끼리” 지내려고 하는 반면에, 중학생들은 “낙천적이고,” “활기차고,” “정직하고,” “열려있고,” “열광적이며,” “교사들에게 말 붙이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서 교사들 또한 생기를 느끼게 된다. 중학생들은 늘 “변화와 유동”의 상태에 있다. “감정의 고저” 때문에 초기 사춘기는 학생들 자신과 교육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으로 간주되었다. 진학상담사 글로리아 심프슨은 중학교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시기는 멋지지만 힘든 때입니다. 이 시기는 겪기도 힘들고 부모 역할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열셋이나 열네 살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 보고 싶은 나이가 있지만, 이 나이는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99/00/Interview Memo: 2).

약물상담사 수잔 로링 역시 중학생들의 감정성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당시 고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두 곳을 순환근무하고 있었다:

[약물상담사들 중] 아무도 중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학생들은 감상적이고, 다루기 어렵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돌풍 같죠. [중학생들을 다루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중학생들을 싫어하

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개발된 교육과정도 없어요. 초동학생용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용이죠. 그것은 성장에 워낙 개인차가 심해서 그렇기도 해요. 7학년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은 열여덟 살짜리 같은가 하면, 여덟 살짜리 같은 애도 있죠. 고등학교에서는 멀쩡한(sane)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설 수 있죠. 중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도전입니다(98/Oct/3: 8).

위의 인용에서 수잔 로링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멀쩡한(sane) 상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중학생들은 “멀쩡하지 않은(insane)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초기 사춘기를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시기-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로 그리는 것은 내게는 새로웠다. 나의 한국에서의 교사 경험과 연구 경험에 의하면,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중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이 시기의 “감정성”을 그렇게까지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교사들에게 사춘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예민한 감수성과 자의식은 반드시 질풍노도의 격동을 내포하지는 않았으며, 그 또한 주로 고등학교시기에 결부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과 2학년(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감정성 보다는 오히려 미성숙함으로 더 인식되었는데, 이는 교사의 일을 한편으로 쉽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여겼다.

그러나 링컨중학교의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7학년과 8학년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학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어느 날 나는 교감 그웬 런디가 학년초의 연례행사인 교실 방문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왜 초기 사춘기 학생들이 그렇게 감정적인지, 따라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왜 그렇게나 힘든 일인지를 “설명”하는 비유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중학생들에게는 “머리(brain)”가 없기 때문이었다:

중학생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반쯤은 맞습니다. 중학생들은 팔, 다리는 움직이지만 머리는 방학 중이라고 말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감은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싸움의 일화를 들려준다.) 내가 유일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머리가 방학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굴 수는 없어요 (98/Sept/2: 13).

“머리는 방학 중”이라는 비유는 익살스러운 한편으로 매우 놀랍게 여겨졌다. 이 비유는 초기 사춘기 학생들은 기능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오로지 “감정”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이라고 말한다. 이때 머리 혹은 두뇌는 감정과는 상관없는, 이성의 기관으로만 인식된다. 위의 교실 방문 직후 내가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교감은 “머리가 방학 중이라는 것 외에는 애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98/Sept/2: 13)라고 덧붙였다. 감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감정은 이성과는 격리된 채(“머리가 방학 중”일 때) 일어나는 유기체적 혼란에 의해 생성된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감정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즉 이성이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간주되지 않는 점이었다.

교실 방문에서 그웬 런디는 자신이 중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쯤” 맞다고 보았던 그 관점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었다. 교감 혹은 전문상담사들은 전체 모임이나 교실 방문을 통해 교칙과 그 외 행동 규범에 대해 얘기할 때, 특히 학년 초에 학생들의 기강을 세우려고 할 때, 초기 사춘기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존하여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 주기가 얼마나 감정적이며, 따라서 위험한 때인가를 얘기하였다. 초기 사춘기의 감정성을 그렇게나 강조하였던 것은 역으로 이성의 덕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이다.

“머리는 방학 중”의 비유는 감정과 이성의 민속 이분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 이분법에 의해 사춘기는 감정과 배타적으로 결부된다. 감정과 이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관점은 신경과학과 임상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예를 들면, 안토니오 다마시오(Damasio 1994)는 임상 예를 통해 감정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근본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경험에는 인지가 매우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연구들이 있어왔다(대표적으로 Schachter and Singer 1962). 그러나 감정은 “비이성적이며,”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민속 관념은 링컨의 교직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한 관념은 사춘기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 절에서는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민속 모델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는 사춘기의 민속 이론을 살펴본다.

3. “심리생리적 단계”로서의 초기 사춘기

인간발달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속 모델에서는 ‘발달 단계’의 관념이 핵심적이다(Harkness et al. 1992). 이 모델에 따르면 아이들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는 다른 단계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발달 단계’의 민속 모델은 본래적으로 연속적인 인간 발달의 과정을 독자적인 국면들로 분절하여 개념화시키고, 각각의 국면들을 독특하게 특징짓게 한다. 링컨중학교의 교육자들 역시 단계 모델을 사용하여 초기 사춘기를 독특한 인생 국면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초기 사춘기를 십대 중, 후반의 사춘기와도 구분하면서, 이 시기를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감정적 취약성이 함께 나타나는 단계로

특징이었다. 또한 초기 사춘기의 감정성은 2차 성징의 발달에 의한 심리생리학적 원인(“호르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내가 요청했을 때, 과학 교사인 이레인 퍼거슨은 “이 아이들은 그저 미쳤어요”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그녀는 두드러지는 감정성과 육체적 변화가 특징인 사춘기의 상태는 임신과 비교할 만하다고 말하였다:

중학교에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호르몬들입니다. 아이들의 몸 전체가 변화하고 있지요. 여자아이들은 납작하던 가슴이 [갑자기 부풀어 오릅니다.] 제 수업에 들어오는 여학생 한 명은, 이건 정말 웃겨요, 그 애는 가슴이 아주 커요, 그런데 자기 가슴 양쪽을 책상위에 척 걸쳐 놓아요. 제가 혼자서 하는 말이, 아가씨, 머지않아 그것을 극복하기 바래요. 그렇지만 그 애는 이 년 전에만 해도 그런 가슴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사춘기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임신입니다. 임신하고 있을 때에는 호르몬이 날뛰게 되고, 몸이 변하고,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와 임신은 공통점이 많아요. ... (나: 임신기와 비슷하다는 것은,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런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호르몬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호르몬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주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Interview/Elaine Ferguson/2-25-00).

퍼거슨 교사는 사춘기 동안에는 임신과 마찬가지로 신체가 변화하며 “호르몬이 날뛰다”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이 “호르몬”이 사춘기 특유의 감정적 격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민속 이론은 청소년기를 질풍과 노도의 시기로 보았던 G. 스탠리 홀(1916[1904])의 이론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20세기 초에, 사춘기를 생리학적 불안정에 기인한 감정적 소용돌이의 시기로 개념화하였던 스탠리 홀의 사춘기 이론은 특별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

고, 그 후 많은 다른 이론가들, 특히 고전적 정신분석이론가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을 펼쳤다. 예를 들면, 안나 프로이드는 “사춘기 과정 동안 지속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A. Freud 1958: 275)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극단적인 감정성은 청소년기 동안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즉, 심리적 불안정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예컨대 반항적인 행동)은 사춘기에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춘기 동안 호르몬이 맹렬하게 작용하고,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이 격증하는 것에 의해 자아가 압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los 1962, 1967, 1979; A. Freud 1958, 1965; Rabichow and Sklansky 1980). 아래 인용하는 교감 그웬 런디의 진술은 이러한 정신분석적 시각과 대체로 일치한다:

6학년짜리 아이는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 애들은 자기들 능력껏 아주 착실하게 행동합니다. 그 아이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을 흉내 내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뭐든지 합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잘 해내지요. 또 늦게 오면 꼭 집에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런 아이들이 다시 두 살짜리가 되어 버립니다. 대단한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잠을 전혀 자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댁니다.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대체로 아니오 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에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약물, 아니면 그 밖에 뭐든지 간에 것으로 꽤나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변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떨쳐내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Interview/Gwen Lundy/4-13-00).

런디 교감에 따르면 초기 사춘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발달상의 변화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기이며, 사춘기의 반항적인 행동들은 그 “고통”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온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

운 것은 런디가 초기 사춘기를 두 살 시기와 비교한 것이다.

초기 사춘기는 “미운 두 살(terrible two)” 시기¹⁰⁾와 흔히 비교되는데, 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립 욕구가 현저하게 증대되고, 그에 따라 반항심의 표출이 빈번해진다는 점에서였다. 아래 인용은 음악교사 엘리자베스 스미스의 진술이다:

저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두 살짜리 애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두 살짜리 아기들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말을 하나까 나는 이제 진짜야 하는 식이 되죠. 말하자면, 그저 무력한 아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사춘기는 또 다른 증대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진짜가 되는 것인데요, [사춘기 애들은] 나는 많이 자랐고, 좀 어른 같아,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도 있고, 차를 몰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성숙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거나 자만을 부리는 것을 보면 두 살 시기 아기들과 정말로 비슷해요 (Interview/Elizabeth Smith/3-28-00).

스미스 교사는 두 살 시기에 나타나는 인지 발달상의 도약과 초기 사춘기의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도약을 병치시키고, 반항적인 행동이 그 두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교 역시 발달 단계의 민속 모델에 의거한 것으로, 초기 사춘기와 두 살 시기가 각각 독특한 국면으로 개념화되는 동시에 각 단계의 발달상의 특징이 서로 비교, 대조되었다.

10) 여기서 “미운 두 살” 시기는 만 두 살을 전후한 때를 말한다. 링컨의 한 학부 모는 “미운 두 살”이라는 관용어구에 빗대어서 초기 사춘기를 “미운 열세 살”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Interview/Margaret Keith/5-4-00).

4. 전문 이론과 민속 이론

언어학자 졸탄 코백세(Kovecses 2000: 114)는 감정의 은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에 대한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 이론이 민속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경우이고, 둘째, 민속 이론 속에 존재하는 일부 은유가 전문 이론의 생성을 유발하는 경우, 셋째, 전문 이론이 민속 이론에 설득력 있는 은유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춘기 심리의 경우,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둘 관계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는 스탠리 홀의 이론이 그렇게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왔던 것은, 그것이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좀 더 폭넓게는 서구인들의, 민속심리적 모델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감정을 유기체적 혼란의 결과로 보는 것은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감정을 “육체적” 작용으로, 이성을 “정신적” 작용으로 간주한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사춘기의 급속한 육체적 성장은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 작용을 동반한다고 가정되는 것이다.

홀의 이론은 민속 모델에 그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제시되었을 때 매우 잘 받아들여졌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다시 사춘기에 대한 민속 이론에 정교함과 합법성을 더해 준다. 다음에 인용하는 수잔 로링의 진술은 사춘기에 대한 전문 이론이 민속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예시 한다:

제가 약물상담사들을 위한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교수가 중학생들은 발달상의 정신이상(developmental insanity)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98/Oct/2:5, 필자의 강조).

상담전문가로 학교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는 로링과 같은 교육자들은 그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사춘기에 대한 전문 이론을 지속적으로 접한다. 앞서의 인용에서 로링은 중학생들은 감정적인 유동으로 인해 다루기가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었다. 이러한 로링에게 “발달상의 정신이상”이라는 관념은 중학생 시기를 이해하도록 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즉, 중학생들은 일종의 “미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다는 민속 이론은 이제 전문가에 의해 뒷받침된다. “발달상의 정신이상”이라는 개념화는 고전적인 정신분석이론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앞서 논의했듯이, 이 이론은 초기 사춘기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 발달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 다시 링컨의 교감 그웬 런디의 말을 들어보자:

때로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일부러 실패해보기도 합니다. 뼈뺏하게 굴어보기도 하고,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 이 나이에 반항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직도 가족들 품안에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더 위험한 짓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세 살짜리 아이는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풀 속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스무 살짜리는 알라스카로 가고 싶어 하죠. ... 만약 지금 [반항해 보고] 그것을 해결한다면, 아이들은 자라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아이들은 다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98/Oct/4:2-4).

런디는 사춘기의 감정적인 분출은 필연적일 뿐 아니라, 건강한 성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까지 보았는데, 이 역시 정신분석이론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요약하면, 초기 사춘기의 민속 이론은 발달 단계의 민속 모델과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민속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문 이론들과도 매우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상호 작용의 복

합성으로 인해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 간의 관계의 본질을 알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춘기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으로 작용해 온 전문 이론들은 민속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사춘기는 감정적 격동기이며 이는 생리적인 불안정성 혹은 “호르몬”에서 기인한다-를 민속 이론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가지 이론 모두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적 민속 모델이 제공하는 보다 큰 문화심리적인 틀에서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심리학자 다니엘 오퍼는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사춘기 이론은 정신과의 임상적 예에서 발견되는 증상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십대들에게 있어 사춘기는 비교적 평온한 발달 단계라고 보았다(Offer and Offer 1975; Offer, Ostrov, and Howard 1981; Offer and Sabshin 1984). 이십여 년에 걸친 연구과제에서 오퍼와 그의 동료들은 특별히 고안된 질문지(Offer Self-Image Questionnaire)를 통해 십대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성적 욕구의 증대를 사춘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정신분석 이론과 달리, 오퍼 등은 대부분의 십대 청소년들이 그들의 신체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적 욕구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오퍼 등은 사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서적인 긴장과 감정적인 격동을 앞세우는 정신분석적 이론은 사춘기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지속시킬 뿐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링컨의 교사 매기 잉골드는 십대들이 감정적이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대중적인 관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사람들은 십대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십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저의 직업이 끔찍하다고들 생각하거든요. 십대들은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십대들은

멋져요(99/Oct/1:4).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이론과 시각들은 사춘기에 대한 담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춘기에 대한 담론은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 모두, 생물학적 결정론에 바탕을 둔 심리적 접근이 주류를 형성해왔는데, 이는 개인주의가 미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 크다. '개인'을 현상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의 영향 하에서, 사춘기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질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던 것이다.¹¹⁾ 또한 개인주의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하면서, 감정에 대한 이성의 지배를 인간됨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감정과 이성의 민속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춘기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 역시 그러한 이분법에 바로 닿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춘기에 대한 민속 이론이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연관하여 사춘기의 사회화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5. 감정 통제의 사회화

사춘기에 대한 민속 이론은 사회화의 청사진을 형성하는 데 방향을

-
- 11) 자넷 핀(Jenn 2001)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춘기의 감정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심리적 접근이 사춘기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세기 초의 포드식 체제는 통제되어 있는, "이성적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포드식 자본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청소년들(미래의 노동자들)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과 치료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도 사춘기에 대한 병리학적 접근은 여전히 자본주의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관련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제시함으로써, 사춘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성한다. 초기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속 이론은 호르몬의 효과로 인한 감정적 취약성을 가정하고, 이 시기를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감정적인 단계로 특징짓는다. 이러한 민속 이론은 사회화 담당자들의 인식과 나아가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링컨의 교육자들은 초기 사춘기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격동으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한편으로, 감정 통제를 이 시기의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 개인주의의 인간관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자신의 이성 외에 타인이나 외부의 규척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감정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정향진 2002 참조).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서 인간에 대한 문화적 범주로 형성되어온 “개인(individual)”의 관념은 이성적인 자아의 관념에 기초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감정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가정한다. 감정은 인간성의 보다 “원시적”인 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간주되며, 감정 통제는 인간됨 혹은 성숙함의 기본 요건이 된다. 이러한 인간관에서 볼 때, 사춘기의 많은 행동들은 “비이성적”으로 여겨지고, 이 시기의 “감정성”은 두드러지게 인식된다. 감정 통제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심리적 지표로 여겨지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춘기에 감정 통제에 대한 사회화 압력은 매우 커진다. 링컨의 교육자들이 중학교 시기가 가르치기 가장 어렵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은, 중학생들의 감정적 취약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화 담당자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 통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링컨의 교육자들은 감정적이고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사춘기 학생들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과도한 감정

은,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경우에 따라 “위험”하다고 간주되었다. 특히 “분노(anger)”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직접적인 분출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져 종종 처벌로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감정을 분출하는 대신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강하게 유도되었는데, 교육자들은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사자는 감정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감정을 유발한 상황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이성적인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링컨의 교육자들은 언어적인 표현을 거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분출하는 경우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였는데,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아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out of control”) 감정에 의해서 지배될 때 예기치 못할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고 생각하였다. 감정의 언어적 표현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화 담당자들의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교육자들은 언어적인 표현을 이끌어내어 학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학생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도왔다.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 상담이나 약물 치료 등의 외부적인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정 통제에 대한 강조는, 중산층, 그중에서도 백인 중산층의 가치를 매우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층 출신의 유색인 학생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사회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감정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두고 볼 때, 링컨중학교에서 하층/유색인 가정 배경의 학생들은 중산층/백인 가정 배경의 학생들과 다소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링컨에서 실시되고 있던 수준별 반편성은 미국 사회의 인종적, 계층적 사다리를 매우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상급 수준 학급일수록 중산층/백인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급 수준일수록 하층/유색인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급 수준, 즉 영재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자기 통제력이 가장 잘 훈련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반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혼계와 처벌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하급 수준반의 학생들이었다. 링컨의 교육자들은 감정이 잘 통제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재프로그램 학생들의 전반적인 감정 통제력은 그들의 인지 능력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영재프로그램에서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준별 반편성에서 인종, 계층적인 불균형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재프로그램 학생들의 전반적인 감정 통제력은 그들의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고보다는 그들의 계층적, 인종적 배경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감정 통제를 중시하는 중산층/백인 중심의 개인주의적 인간관은 학교 교육에서 비공식적 교육과정 뿐 아니라 공식적 교육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 능력” 혹은 “학습 준비도”라는 일견 가치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조직되는 공식적 교육과정 역시 감정과 사람됨에 대한 지배 집단의 문화적 관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으며, 지배 집단의 체계모니를 반영하고 또 강화한다.

6. 마무리

이상에서 나는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속심리 모델을 살펴보고, 민속 모델이 제공하는 이론과 전문 이론의 관계, 그리고 민속 모델이 사춘기 동안의 감정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미국인들의 민속심리 모델에서 초기 사춘기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감정적인 단계로 간주되며, 이 시기의 감정적 취약성은 2차 성징의 발달에 따른 심리생리학적 원인, 즉 “호르몬”에 있

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민속 이론은 사춘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담론을 제공해 온 주요 전문 이론들과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 간의 관계의 명확한 본질을 알기가 어렵다. 사춘기에 대한 이론의 경우, 민속 이론과 전문 이론 모두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이라는 민속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춘기에 대한 전문 이론은 민속 이론과 기본 전제를 공유하면서 발전해 온 한편, 다시 민속 이론에 정교함과 합법성을 부여한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 이론과 민속 이론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며, 이른바 과학적이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되는 전문 이론 역시 그러한 이론이 형성되는 사회의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은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통해 도덕적인 질서를 확인하고, 그 질서 속에서 자아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또 협상하기 때문에, 감정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감정의 민속심리적인 코드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화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특히 성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감정에 관련한 문화적 학습은 더욱 의도적으로 촉진되고 공식화된다. 미국의 경우 중학생 시기는 감정적 취약성으로 특징지어졌고, 이성적 자아의 관념에 기초한 인간관에서 볼 때, 감정 통제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감정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감정의 언어적 표현을 장려하는 한편 직접적인 감정의 분출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통제에 대한 강조는 백인, 중산층 중심의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감정 자체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속성으로 간주한다.¹²⁾ 그 결과 감정의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고 개인에 궁극적인 책임

12) 미국 사회에서 항우울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에의 상대적인 의존도가 높은 것 역시 감정을 개인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적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을 묻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 감정 통제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사회화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은 백인과 중산층의 헤게모니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정향진

- 2002 “문화적 범주로서의 ‘개인(Individual)’ 과 자기 규율(Self-Discipline) 훈련: 미국 개인주의의 인간관과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5(1): 173~199.

Blos, Peter

- 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Y: The Free Press.
-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XXII: 162~186.
-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Caton, H.

- 1990 The Samoa Reader: Anthropologists Take Stock.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Damasio, Antonio R.

-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Y: Putnam.

D'Andrade, Roy

- 1995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nn, Janet L.

- 2001 Text and Turbulence: Representing Adolescence as Pathology in the Human Services. Childhood 8(2): 167~191.

Freeman, Derek

1983 Margaret Mead and Samoa: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Anthropological Myth. MA: Harvard University Press.

Freud, Anna

1958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XIII: 255-278.

1965 Normality and Pathology in Childhood. *The Writings of Anna Freud* 6.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Hall, G. Stanley

1916[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Y: Appleton.

Harkness, Sara, Charles M. Super, and Constance H. Keefer

1992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 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In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Roy D' Andrade and Claudia Strauss, eds. NY: Cambridge Univ. Press.

Kovecses, Zoltan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NY: Cambridge Univ. Press.

Lutz, Catherine

1983 Parental Goals, Ethnopsychology, and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Meaning. *Ethos* 11(4): 246~262.

Mead, Margaret

1961[1928] Coming of Age in Samoa: A Psychological Study of Primitive Youth for Western Civilization. NY: William Morrow.

Offer, Daniel and Judith Offer

1975 From Teenage to Young Manhood: A Psychological Study. New

York: Basic Books.

Offer, Daniel, Eric Ostrov, and Kenneth Howard

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Basic Books.

Offer, D. and M. Sabshin

1984 *Adolescence: Empirical Perspectives*. In *Normality and the Life Cycle*. D. Offer and M. Sabshin, eds. New York: Basic Books.

Rabichow, H. G. and M. D. Sklansky

1980 *Effective Counseling of Adolescents*. Chicago: Follett.

Schachter, Stanley and Jerome E. Singer

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69(5): 379~399.

Schlegel, Alice

1995 A Cross-Cultural Approach to Adolescence. *Ethos* 23(1): 15~32.

Spindler, George D. and Louise Spindler

1987 *Cultural Dialogue and Schooling in Schoenhausen and Roseville: A Comparative Analysi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8(1): 3~16.

Strauss, Claudia

1990 Who Gets Ahead? Cognitive Responses to Heteroglossia in American Political Culture. *American Ethnologist* 17: 312~328.

〈Key concepts〉: Early adolescence, Ethnopsychology, Cultural Model, Emotionality, Socialization

“Junior Highs Are Crazy”: The American Ethnopsychology of Early Adolescence

Hyang-Jin, Jung

This paper examines the American cultural construction of emotions and its influences on the socialization of early adolescents. It is based on 12 months of ethnographic field research in a public junior high school in the Midwest, U. S. A child, according to the American cultur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goes through a series of distinctive stages as it matures, each stage being characterized by certain developmental features. With the stage model, early adolescence is readily conceptualized as a unique life phase, when the most observable and dramatic events of sexual maturation occur. The American educators associated early adolescence with a remarkably vulnerable emotional state, and explained the high emotionality in psychophysiological terms (“hormones”). They conceived a major developmental difficulty of early adolescence as being too “emotional” or “irrational,” lacking rationality (“brains on vacation”). An urgent educational task was then to help early adolescents develop rational control over their emotions. Students were guided to verbalize and detach themselves from their emotions, especially when they experienced socially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This educational task was challenging, I contend, not so much because of the emotionality of early adolescents as the American cultural emphasis on emotion control.